

고전소설 속 서사적 지연의 제 양상

조용호*

<차례>

1. 서론
2. 지연 전술의 구사 방식과 인지 수준
 - 1) 일부 인물은 알지만 독자는 모르는 경우
 - 2) 인물과 독자가 모두 모르는 경우
 - 3) 인물은 모르지만 독자는 아는 경우
 - 4) 일부 인물과 독자가 아는 경우
3. 지연 전술의 의도와 효과
 - 1) 이념 지향과 교훈성의 강화
 - 2) 재미 추구와 쾌락성의 제고
 - 3) 쾌락성과 교훈성의 조화
4. 결론

<국문초록>

이 논문은 고전소설에 나타나는 서사 지연의 양상을 살펴보려는 목적으로 쓴 것이다. 지연은 대개 스토리 수준의 인물과 담화 수준의 독자가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나는 이 사실에 주목하여 인물과 독자가 인지하는 정보의 유무와 차이에 따라 4개의 범주로 나누고, 그것들이 실제의 소설들에서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살폈다. 대상으로 삼은 소설은 <남가록>·<절화기담>·<심청전>·<춘향전> 등 4편이었다. 이 소설들에서 채용된 지연 전술은 그 4가지 범주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고, 다양한 양상으로 구사되고 있었다.

다음으로는 4편의 소설들에서 작가 혹은 서술자가 지연 전술을 구사하게 된 의도와 효과에 대하여 살폈다. 그 결과 지연 전술을 구사하는 의도는 교훈성을 강화하거나, 쾌락성을 제고하거나, 쾌락성과 교훈성을 조화시키려는 데로 수렴되고 있

* 목포대학교 국문과 교수

었다. 그 가운데 주로 쾌락성을 추구한 <절화기담>과 쾌락성과 교훈성을 조화시키고자 한 <남가록>은 세련된 기법을 사용하여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는 데 성공하고 있어서, 발전된 형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받을 만했다. 이러한 결과는 지연 전술이 고전소설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데 중요한 잣대로 활용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 지연, 정보, 스토리, 담화, 인지, 교훈성, 쾌락성, 남가록, 절화기담

1. 서론

기 .
 답 , 약 . .
 끼 흡 . 잡 끼
 , 답 매
 불 중 .
 많 끼 너
 흥 끝 럽 . 래 끼 출
 큼 포 켜 , 응답 흥
 마 . 똑같 , 향 풀
 독 흥 붙잡
 흥 발 긴 *suspense*
 놀 *surprise* 쇠 빈번 .
 행 매 , 특 *retardation*
 퍼 . 직
 써,1) 말 확 회피

루 독
 뜻 . 특징
 독 확 늦 , 발
 까 넓 포 킬 .
 김 때 날 드 ,
 천 획 따 론 , 독 응 독 효
 갖 효 론 ,
 갖 론
 독 불잡
 , 독 행 근 금증 발
 2) .
 출 까
 토 준³⁾ 따
 , 준 묘 *anachrony*
 험 틀 획 꾸버

-
- 1) 담화상에서 시간 조 의 문제는 주로 사건 제시의 순서*order*, 지속*duration*, 빈도 *frequency*의 세 측면에서 논의된다. 텍스트 시간론에 대해서는 Genette, Gerard, *Narrative Discourse*, Cornell University Press, 1980, pp.33~160. 및 Rimmon-Kenan, Shlomith, *Narrative Fiction: Contemporary Poetics*, 최상규 역, 소설의 시학, 문학과지성사, 1985, 69~91쪽 참조.
 - 2) Abbott, H. Porter, *The Cambridge Introduction to Narrative*, Second ed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p.116.
 - 3) 이 글에서는 스토리 수준, 담화 수준이라는 말을 빈번히 사용하게 된다. 그런데 서사 이론가들마다 사용하는 용어와 그 함의에 차이가 있어서 혼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에, 범박하게 그 예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스토리 수준은 인물이 행동하고 사건이 발생하는 이야기 속의 세계이다. 그리고 담화 수준은 스토리 수준에서 일어난 일을 서술자가 서술하여 독자(업 하계는 서술자의 말을 그대로 듣고 수용하는 피서술자)에게 전달한 내용이다.

면 더 , 밑 산
 획 산 발 높 .

것 발휘 쓴 ,
 매 높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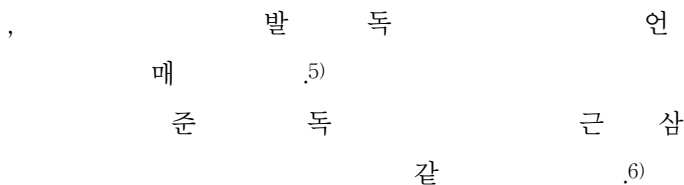
4) 후 출 호 퍼
 근 매 근접 특 화

2. 지연 전술의 구사 방식과 인지 수준

토 준
 래 많 . 준
 쇠 숨겨
 독 까 발 .
kernel 뿐 *satellite*,
 뿐 . 프
 포괄 완 균 범
 매 럽 . 국 독
 효
 . 래 독 특 뿐

4) 나는 지연 전술이 매우 광범위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하기도 할 해서 매우 익숙한 소설인 <심청전>과 <춘향전>, 그리고 상대적으로 알려진 소설인 <남가록>과 <절화기담>을 주 텍스트로 삼아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회피



- 5) 서사 지연은 스토리 수준에서만 일어날 수도 있고, 담화 수준에서만 구사될 수도 있으며, 스토리 수준과 담화 수준에서 함께 구사될 수도 있다. 그 가운데 담화 수준에서만 구사되는 서사 지연은 인물의 행위와 무관하며, 오로지 독자의 인지 여부만이 문제된다. 이때 인물과 독자가 ‘안다/모른다’를 판별할 때 무엇을 알고 모른다고 하는 것인가에 대한 논점을 분명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지연 전술은 인물과 독자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정보를 아는가 모르는가의 차이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 하지만, 단지 정보의 보지 여부만으로 논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연은 개별 사건이나 사건 맥락에 대해 서술자가 즉각적으로 서술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 인지하는지의 여부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스토리 수준 즉 사건 당사자인 인물을 더 세계에서는 사건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만, 서술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하거나 전 한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을 끄는 경우도 없지 않다. 독자는 이때 서술자가 지연 전술을 펴고 있다는 사실을 작하게 되는데, 이 경우가 담화 수준에서만 구사되는 지연 전술에 해당한다. 본고에서 지칭하는 지연 전술은 정보의 소유 여부에 의한 것과 독자가 사건에 대한 서술 자체가 느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 6) 지연 전술이 구사되는 범주를 구분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얼핏 떠오르는 것이 스토리 수준과 담화 수준에서 구사된 지연으로 나누는 방법, 순서·지속·빈도라는 시간 조 의 방식을 기준으로 나누는 방법, 지연의 효 이 미치는 범위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스토리 수준과 담화 수준으로 나누어 범주를 구분하는 방법은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채택을 주저하게 된다. 서사 이론에 라 텍스트의 실제작가, 내포작가, 서술자의 존재는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지만, 실제 독자 과정에서는 이론상으로 그것과 대 을 형성하는 피서술자, 내포독자, 실제독자를 명확히 구분하기가 지 않다. 많은 경우에 실제독자는 그 세 차원의 인격 범주 사이를 오가게 되는데, 그런 과정을 거쳐 해석된 의미는 그 가운데 누구의 것인지 정 하게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시간 조 의 방식에 라 범주화하는 방법은, 지연 전술이 구사되는 수준이 스토리인지 담화인지 매번 언급을 해야 하기에 번 거 기도 하고, 두 위에서 행되기도 하므로 설명과 이해 과정에서 혼동을 일으 가능성이 상존한다. 효 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은 그 범위를 두고 견해차가 있을 수도 있고 지연 전술의 다양한 양상을 명료하게 구분하여 설명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념 독 특 , 끝까
 범 . 밖
 독 흥 발 독 행
 .
 첫째, 토 준
 , 독 .7)
 행 ,
 빠 .
 무 , 독
 확
 언급
 둘째, 토 준 발
 준 환 , 토 준
 준 독 확 . 행
 옆 취 ,
 언급 , 따
 까 예 .
 셋째, 준 , 토 준
 움직 혀 준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채택한 방법은 그 세 가지 방식을 포괄적으로 절충한 것이다.
 7) 하지만 어 경우에도 텍스트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의 지연 전술에 대해 인물은
 알고 있는데 독자가 까지 모르는 경우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어서는 안 된다.
 소설이 날 때까지 독자에게 단서마저 감 지는 스토리 수준의 사건은 텍스트 수준
 에서 현실화되지 않기 때문이다. 설사 독자의 해석을 고의적으로 방해하기 위해 사
 건 맥락의 시말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는 있을지라도, 독자는 그렇게 진행된다는 사
 실 정도는 추측하게 마련이다.

독 . 독
 무 , 킬
 특 묘 범 포
 킬 .
 넷째, 토 준 준 ,
 독 마찬가지로
 . 첫 번째 범 토 준
 ,
 티프 채 .

1) 일부 인물은 알지만 독자는 모르는 경우

토 준 독
 . 맥락
 밖 더 , 채 숨
 .
 면 든 말 확
 독 뜻 . 항 발
 후 까 든
 . 독 흥
 , 누락 왜곡
 꾸 .
 획
 꼽 <남 > 론 .
 름 ‘ ’ 4

횡 약 필 ,8) 번째 태
 응 획득 천
 . 남 국 독 태
 땡 탕 응 듭
 근 호 채택 .
 () ()
 (), , , .
 (-)
 () () .
 “ ()
 ,
 ” .
 ~
 (-) ~
 ,
 .
 ,
 .

8) 그 이름은 각각 , , , 인데 의 현신으로 서사에 차례로 등장하고 있다. 소설에 등장하는 순서나 지 용 의 절 함은 등장하는 순서와 같지만, 신분과 지 그리고 소설에서의 비중은 그 반대의 순서를 지 다.

태 탕 헤 못 긴
 넋 듯 탈 느끼 오 까 , 든
 긴 끈 놓 못 . 태
 투족 짝 따 침
 몰입 밖 .10)
 응 원 불
 말 룯 원
 불 태 온 . 태 느꼈 탈
 독 완벽
 끝 효 . 태
 친 완벽 출
 완 놀 됨 써, 독 긴
 예 못 묘 탄 금 못
 . <남 > 원
 독 탄 든 온
 편 큼 천 .

10) 이 사건은 원문에서 32쪽 분량으로 서술되고 있어서, 그 이전에 등장하는 두 인물인 석전장과 석화주에 관해 서술된 총 분량인 13쪽에 비하여 길다. 석태의 이런 행위들은 이후의 서사 전개 과정에서 그가 활약하는 방식과 무관하지 않기에 단지 흥 거리로 도입된 것이라고 할 수만은 없다. 나의 이런 생각과는 달리 ‘<남가록> 전체에서 볼 때 이 부분은 일종의 사족으로 서사 전체의 유기적 구조나 일관성 있는 흐름을 방해할 정도로 돌출적’이라고 부정적으로 바라본 연구자도 있지만(강경미, 『<남가록>의 서술상 특징과 작가의식』, 『우리어문연구』 50, 2014, 26쪽.), 나는 이 일련의 사건은 한 집 외아들인 황석태가 무장으로 변신하게 되는지, 뒤에 여장을 하는 사건이 나오는지, 그리고 옥석태라고 불리게 되었는지 등의 근거가 되기에 결 사족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2) 인물과 독자가 모두 모르는 경우

< >

. 토 남 집 객 롯
 옆집 린 매 멀
 까 2년 . 끝
 욕망 , 욕망
 매 마 남 확 .
 마 , 효
 범 . 래 독
 욕망 금증 끝까 남
 밖 .
 매 후 까 꽤 오
 랜 레 남 든 .
 레 매 직 까 행 . 레
 남 퍼 .
 첫 번째 : 매 .
 번째 : 말긴 매 언 매
 매 린 .
 번째 : 옆집 집 남 탁
 뒤, 매 떠 응 .
 네 번째 : 매 옷 벗긴 뒤 직
 까 갔 , 마침 매

온 버 줄 청 .
 청 저 말 , 3년 뒤
 춘 채 불쌍 맹 청 잔 배푸 원
 택 . 청 친 잔 마 날
 루 . 봉
 덕 후 청 숨 마 산 탕
 , 맹 잔 덕 맹 눈
 망 , 멍 옷 , 곳
 탕 . 청 눈 뜨 까
 덧붙 킨 .13)
 토 준 못 준 독
 레 묘 론 .
 매 긴 림 빠
 , 짐짓 청 피 독 곳
 긴
 . 예컨 <춘 >

13) 하지만 이런 지연 전술이 구사되더라도, 독자들은 누구라도 결국은 심청이 그토록
 원하는 아 지와의 상 이 이루어질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오히려 심청의 효성을
 더 강조하기 위해 심 사에게 고초를 게 하는 기 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소설은
 특정한 사회적 상황에서 구현된 인간의 필요와 망의 질 형태를 보여주며, 독
 자들은 소설 속 주인공들의 희망이나 두려움 그리고 일반적인 관심사를 공유하고 공
 감하면서 유대를 형성하는바, 이것은 문학에서 특허처럼 받아들여지는 정의이자 도
 이기 때문이다. 문학적 정의에 대해서는 Nussbaum, Martha C., *Poetic
 Justice*, 박용준 역, 시적 정의, 리출판, 2013, 36쪽을 참조함.

.14)

령 루 춘 뒤 밤 춘 집
 밖 춘 손 잡 청까
 풍 묘 . 흥 희희낙락
 결 결 , 령 잔 결
 춘 집 커 , 청까 1
 . 더 줄 친 청춘 옥 불탄 16 령
 급 춘 , 결 빠 건 큼
 큼 결 곧 춘 탕 별
 예 , 령 균 독 합 .
 결 묘 춘 집 집
 꾸 저 , 령 마
 집 꺾 곳저곳 까 찬찬
 느릿느릿 결 .
 앞 령 행 익 독
 춘 별 행 금 마 .
 짐짓 집 른,
 갈 피 꽃 득
 위섬 , 벽 림
 묘 . 령 집 춘 머 퇴 월매
 혀 울릴 , 령 벽 죽

14) 『남원고사』, 설성경 역주, 한국고전문학전집 12, 춘향전,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95, 291~295쪽. 참고로 이 책은 수 쪽에는 원문이 실려 있고 수 쪽에는 현대어 역이 실려 있어서 실제의 분량은 표시된 것의 절반이 조금 는 3쪽 정도이다.

럽 저 너저 결린 집
 럽 . 독 금증 령 결 결 레 커
 , 갑 짜
 독 몸 .15)

4) 일부 인물과 독자가 아는 경우

독 독 학 ,
 탕 까
 행 .
 발
 밖 . 독
unreliable
 꽤 행 겠 .
 취 특 누 ,
 퇴 반 발
 못 르 ,
 독 짓 혹 염 따
 .
 래 독 발 믿 름
 겨 완
 . 발 말

15) 독자들에게 <춘향전>은 비록 매우 낯익은 텍스트지만, 늘 새로운 독서는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는 사건이 되기 때문에, 독자들에게 익숙한지의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비록 처음에 을 때와 반복적으로 대할 때에는 얼마만 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그렇다. 판소리 공연에서였다면, 광대는 소설의 서술자보다 상대적으로 유연하고 현장 분위기를 고려했을 것이므로 더욱 그러하다.

언 먹 , 옥 춘 말 네
 힘 온 . 열
 몰 춘 온 령 립
 더욱 더 망 빠져 뿐 .
 령 옥 춘 몰골 원급
 암행 왔 직접 밭 못 암
 . 령 옷
 립 춘 암 채 못 .
 꿈 흉몽 춘 판 귀 몽
 풀 불 , 망 빠져 앞뒤 못
 춘 더욱 더 망 뿐 .
 잔 출 징 행 령 춘 얼굴
 청 더욱 망 빠뜨린 .
 춘 불 ,
 산

3. 지연 전술의 의도와 효과

1) 이념 지향과 교훈성의 강화

왜
 둔 효 엇 갈 금증 ,
 효 론 접근 .
 앞 론 < 청 > < 춘 >

딸 뒤 갑 현현 환골탈태 .
 를 스 하 싱하 근
 하 이 하 슬
 스 하 스 하
 곁의 덕 하 취 흘 . ~
 흙 를 흥 흘시
 흙 츠 눈 .19)
 봉 빛 후 딸 덕
 눈 뜨 벼슬 언 . 봉
 따 , 준
 청 . ‘ 휘 친 를 하 스급하
 더 ’20) 언급 증 .
 『 』 오 ‘
 ’ 언
 . 말 효 끝 디 준 .
 청 ‘ ’ 엇 까? 맹
 약 오 현현 더 특
 럽 . 청 효
 . 친 열
 줌 써, 맹 말 ‘ 불효
 벗 날 . < 청 > 직접

19) <륙 심 >, 서울 신문관, 대정 2년(1914), 46~47쪽.

20) <륙 심 >, 위의 책, 47쪽.

늘 놓 더 , 청 행 호
 . 봉
 빈번 봉 봉 후 청 호
 행 좀 더 ,
 매 긴밀 .
 <춘 > 령 춘
 화 까 묘 른
 . 독 언
 령 . 독 합
 윤 응 , 긴 십
 좋 . 먼저 묘 투 .
 춘 까 른 립 글씨
 마 잡 열 .
 국 , 춘
 립 접
 징 . 뒤 령 춘 례 걸친
 령 희룡 춘 답
 압 굴 . 춘
 행 못 천 관 줄 규
 , 남
 토 .
 령 암행 반 남원 옥 춘
 처 춘 직접 화 까
 투 . 례 걸
 처 춘 힘 . 춘 칭

, 춘 곤 처 옥 , 춘
 관 꿈 풀 오 , 춘
 령 뒤 친 령 둔 뒤 님
 퍼 언 , 암행 칭
 춘 확
 . 춘 더욱 혹 펼쳐
 , 령 더욱 빛 발 . 따
 <춘 > 발휘 효 매 직
 접 . 행 마 춘
 , 독 윤 념 더
 견 .
 춘 끝 출 령 회 끝 령
 봉 졌 . 독 써 언
 매 효 환 . 독
 춘 행 응원
 , 춘 행 범 삼 갖
 , 효 좋 . <춘 >
 윤 < 칭 > 윤 더 직접
 입 , 효 열 윤
 래 겠 .

2) 재미 추구하고 쾌락성의 제고

독 눈 못 엇
 . 철 독

금 곱 럽 . 철
 쓰디쓴 약 . 많
 집
 입 . 발 , 글
 뒷받침 근 .21)
 갖춘 저 써놓 글 ,
 책 짓
 쓴 . 호 론 많
 갖 운 료 옛
 관 혀 억 .

21) 예 대 이 의 다음과 같은 발문에 그런 생각이 잘 드러나 있다.
 “예전에 취은 세립이 어떤순 을 지어 한가함을 즐기고 일 만들기를 좋아하는 무
 리와 실의에 빠져 적 한 무리들이 책을 열어보고 활 웃으며 시름을 게 해주었
 으니, 을 는 기이한 방책의 하나라고 할 만하다. 근자에 쌓친 성여학이 또 취은이
 미처 기록하지 못했던 것들을 모아 책 한 권을 고 이름을 속어면순 이라 하였다.
 대개는 속되고 비루한 말들을 잡되게 가져다가 사람들로 하여금 손 을 치며 활
 웃게 함으로써 의 마 가 가는 것도 스스로 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러니
 그것은 취은의 책과는 형제격이라고 하겠다. 나는 ‘기록된 것들이 더러운 도량을
 지나가는 것처럼 지저분하니 을 상하고 말을 낭비케 하는 것이 아 가?’라고 말한
 다. 이에 대해 내가 말하겠다. ‘그렇지 않다. 예기 에서 ‘당기기만 하고 주지 않
 는 것은 문 무 도 하지 않았다’고 하였고, 시경 에서는 ‘농담도 잘 하나 지나치지
 않네’라고 하였다. 성군의 이 책은 죽히 사람들로 하여금 감동하고 징계함이 있게 한
 다. 그러니 어찌 단지 유희와 해학의 천이 되는 것에만 그치겠는가?’”(

裒

戲 戲
) , 「 , 유 일, 한국고소설비평자료집성 , 아세
 이문화사, 1994, 82쪽에서 재인용. 유 일의 책에는 시경 의 인용구가 ‘
 ’라고 잘못 표기되어 있는데, 이를 바로잡고 원래의 뜻에 맞게 해석하였다.

든 징
 . 쾌락 낸
 호 론 . 흥 봉
 ‘ , 호 합
 편 든 . 욕
 더 ,
 멀 벌 받 후회 저
 근 .
 욕망 남 후회
 헤 , 맥락
 편 윤 념 념 끝 쉽 .
 퍼 닳 .
 2 론 < >
 . 린 매 따 후
 발 . 욕망 오 매
 갖 뿐 . 매 남
 탐 떠 덕 , 긴 남
 죽 혀
 마 갖 , 뒤
 말 죄책 , 못 까워
 뿐 행 탐 후회 따 혀
 . 매 행 .
 까 뒤 남편 는
 언 행 말 죄책 .
 매 핑 마 욕망 응 싶 면

겨 번 오 택
 . 매 덕 책 망 깃
 .
 맥락 몰입 밀착 독 독 첫
 응 움 행 닐
 . 발 직 까 행 척
 매 마찬 . 행
 규 르 ,
 독 덕 즉 판 독
 높 . 령 매
 못 늘 킨 행
 , '왜
 언 매 까' 커 란
 금증 체 남 졌 산
 크 . 독 늘 행 왜 ,
 행 덕 .
 < > 근 , 쾌락
 집 . 따
 럽 .
 념 념 운
 ,
 쾌락
 . 욕망 끝 ,
 입 불 념 .

3) 쾌락성과 교훈성의 조화

회 후 호 따 호 른
 . 령 호 른 더
 , 특 호
 온 회 졌 .
 특
 독 떨 뿐 널
 렴 . 오
 더 , 독 면 든 엇
 호 마 .
 쾌락 독 발견 , 독
 끝 뒤 오 .
 불 , 쾌락
 즉 특 균
 . 토
 준 맥락 발 준 독
 , 준 환
 . 쾌락
 발언 덧붙 취 겠 ,
 발언 호 독 매
 직 느낌 올 .
 <남 > 레 .
 갑 폭 , 탕
 독 뜻밖

탄 더 몰입 .

춘 , 응 들 태 합

. 쾌락

말 . 쾌락 합 합

말 . 쾌락 완벽

를 . 토 준

준 독

직접 줄 획 . 말

겠 토 준 태 버 응

갈 침 먼저 퍼 .

“ ?”

“

?

~

” ~

“ ?

”22)

22) 조용호 역(2008), 앞의 책, 95~96쪽.

참고문헌

- 『륙전소설 심청전』, 서울 신문관, 대정 2년(1914).
- 강경미, 『『남가록』의 서술상 특징과 작가의식』, 『우리어문연구』 50, 2014, 11~37쪽.
- 김경미·조혜란 역주, 『19세기 서울의 사랑: 절화기담, 포의교집』, 도서출판 여이연, 2016, 1~255쪽.
- 설성경 역주, <춘향전>, 『한국고전문학전집』 12,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95, 291~295쪽.
- 여세주, 『조선조 남성혜절형소설의 형성과 변이양상 연구』, 계명대 박사학위논문, 1991, 1~161쪽.
- 유태일, 『한국고소설비평자료집성』, 아세아문화사, 1994, 1~622쪽.
- 조용호 역, 『한국 최고의 전쟁·종교·환상소설 남가록』, 도서출판 박이정, 2008, 1~451쪽.
- Abbott, H. Porter, *The Cambridge Introduction to Narrative*, Second ed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pp.1-203.
- Genette, Gerard, *Narrative Discourse*, Cornell Univ. Press. 1980, pp.1-160.
- Nussbaum, Martha C., *Poetic Justice*, 박용준 역, 『시적 정의』, 궁리출판, 2013, 1~282쪽.
- Rimmon-Kenan, Shlomith, *Narrative Fiction: Contemporary Poetics*, 최상규 역, 『소설의 시학』, 문학과지성사, 1985, 1~228쪽.

ABSTRACT

On Aspects of Narrative Retardation in Korean Classic Novels

Cho, Yong-ho

This paper was written for the purpose of examining aspects of narrative retardation in Korean classic novels. Narrative retardation usually arises from differences in information about events that are known to the character at story level and to the reader at the discourse level. I focused on this fact and divided the aspects into four categories according to the presence and difference of the information perceived by the character and the reader. In addition, I investigated how they appear in real novels. The novels researched in this study were four books, including *Nam-ga-rok*, *Jeol-hwa-gi-dam*, *Shim-cheong-jeon*, and *Chun-hyang-jeon*. The tactics of narrative retardation adopted in these novels were evenly distributed in the four categories and were realized in various aspects.

Next, I analyzed the intention and the effect that the writer or the narrator used the retardation tactics in the four novels. As a result, the intention to use the retardation tactics was converged to strengthen didactics, enhance pleasure, or harmonize pleasure and didactics. Especially in the novels, *Jeol-hwa-gi-dam*, which mainly pursued pleasures, and *Nam-ga-rok*, which tried to harmonize didactics, succeeded in inducing the interest of the reader by using sophisticated techniques, so they deserved to be evaluated as showing the advanced form in classic novels. This suggests that the retardation tactics can be used as an important criterion for analyzing and evaluating Korean classic novels.

Key Words retardation, information, story, discourse, perception, didactics, pleasure, *Nam-ga-rok*, *Jeol-hwa-gi-dam*

논문투고일 : 2018.07.15

심사완료일 : 2018.08.14

게재확정일 : 2018.08.24